

검은 먹으로 되살아난 먹먹한 슬픔 '소년이 온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단팻빵 부스러기를 보며 가슴 깊이 차오르는 먹먹함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두 소년의 주검 옆에 나뉘는 단팻빵은 현대사의 비극을 넘어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지요."

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작전 직후 노년 소프 기자가 촬영한 안중필과 문재학 군의 최후가 수묵으로 표현됐다. 문재학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이다.

소설 '소년이 온다'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광주 상흔을 그려낸 수작이다. 그 작품의 주인공 문재학의 주검 주변에 떨어져 있는 단팻빵의 부스러기는 보는 이에게 먹먹한 슬픔을 느끼게 한다.

수묵화의 거장 김호석의 '무등의 목, 검은 울음'전이 오는 24일까지 전남대 용지관 기획전실에서 진행 중이다. 작가는 이번 초대전에 대표작 8점과 신작 21점을 포함해 모두 29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전남대 5·18연구소(소장 민병로)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민병로 소장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에 담긴 광주의 아픔과 슬픔을 예술적으로 섬세하게 그렸듯이 김호석 화백 또한 5·18의 고통과 비극을 작가 특유의 섬세하고 비유적인 붓질로 형상화했다"고 전했다.

김호석 화백의 광주 전시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검은 먹, 한 점'전에서 작가는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관객과 평론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최근 전시실에서 만난 김호석 작가는 "나는 5월 항쟁 작품전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도 박동하는 생명 덩어리임을 느꼈다. 결코 오래 전 일, 과거라고 말할 수 없는 박동이 생생하게 전해온다"며 "광주항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후세대에게 당시 '광주'의 의미를, 죽어갔던 이들

김호석 '무등의 목, 검은 울음'전 24일까지 전남대 용지관 전시실 '윤상원 열사' 작품도 강렬한 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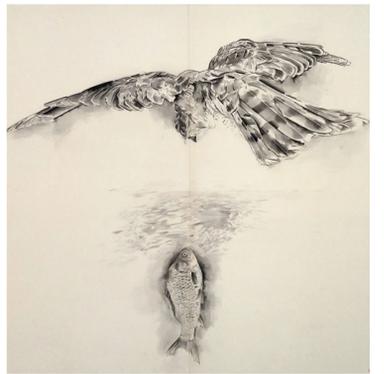
의 송고한 낫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작가는 문재학의 죽음을 담은 작품에 '마지막 입술'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슬픔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유적으로 절제하며 그렸다. 김 화백에 따르면 은유는 "뜻을 쥐어짜고 뭉쳐서 송곳처럼 그 의미를 전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문자적 의미를 탈피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망 속에서 적어도 과거에 기초하되 과거가 아닌 현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전시장 작품들은 하나같이 강렬한 울림을 준다. 윤상원 열사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끝'이라는 작품도 보는 이에게 먹먹함을 준다.



'하얀 침묵'



'무등'

김 작가는 "윤상원 열사를 볼 때마다 맑은 청년, 순진무구한 청년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며 "윤상원 열사의 주검은 마치 '죄 지은 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자'라는 깊은 의미가 투영돼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릴 당시는 매우 힘들었지만 윤상원 열사에서 보이는 말할 수 없는 천진성을 느끼기도 했다"며 "나는 열사가 죽은 것이 아니라 끝임없이 오늘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정읍 출신인 김 작가는 재료를 장악하고 연구하는 예술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한지와 먹을 고집한다. 그는 평소 "재료를 장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아마추어 작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만큼 재료적 물성에 전착한다.

그의 가계에는 동학과 의병 투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드리워져 있다. 고조부는 병오창의 당시 성명문을 낭독한 강직선 선비였으며 그로 인해 옥고를 치렀고 절명했다.

가계로부터의 영향은 자연스럽게 동학, 5·18, 6월항쟁 등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작업으로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을 떠난 자들과 살아 있는 자들이 연대하는 것, 그것은 광주이기만 가능합니다. 정의감에서 우리나라 광주의 고귀한 정신은 영원하고, 더불어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광주는 한국 민주화 역사의 보루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5·18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자연의 본질과 생명의 송고함에 초점을 맞췄다. 검은 먹으로 형상화되고 예술로 승화된 고통은 의미를 깊이 있게 한다.

전시 큐레이팅을 맡은 김허경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김호석은 현상과 본질을 표현하기 위한 회화의 원리로서 무와 유, 여백과 바람을 가로지르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법으로 한국 수묵화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용지관 컨벤션홀에서는 '평론가와 함께 하는 광주정신을 묻다-김호석의 검은 울음'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5·18연구소와 법학연구소 동아시아센터가 주최·주관한 심포지엄에서는 모두 9명의 평론가, 미술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발표 이후에는 김호석 작가와 박규용 철학과 교수의 대담이 펼쳐졌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호석 작가가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문재학, 안중필 군을 모티브로 작업한 '마지막 입술'을 가리키고 있다.



미미작 작품에서 기념촬영 중인 NCT WISH. (광주비엔날레 제공)

스타들·인플루언서 "광주비엔날레 다녀왔어요"

NCT WISH·모델 한혜진 등 방문 139만 구독 유튜브 '제니파크' 소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인 NCT WISH, 모델 한혜진 등 스타들의 비엔날레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NCT WISH 멤버들이 개막식에 맞춰 전시관을 찾는데 이어 최근에는 모델 한혜진이 전시장을 찾아 개인 유튜브 채널에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광주 여행을 콘셉트로 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NCT WISH 멤버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작품 사진을 찍거나 다양한 작품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비엔날레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멤버들은 소리로 표현되는 작품을 듣고 들어가 보며 작품의 의미를 사유하기도 했다.

모델 한혜진이 최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36만 회를 기록했다. 현재 조회수는 74만 여 회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전시장에 들어선 한혜진은 작품 제목으로 내용을 유추하며 그것에 담긴 의미를 찾기도 했다. 색다른 시선과 사유로 읽어내는 작품의 묘미는 이색적인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혜진은 노엘 W. 앤더슨의 '원숭이가 나무를 더 높이 올라갈수록, 영당은 더 많이 드러난다'를 관람하며 '영에를 좇을수록 내 치부가 드러난다'는



한혜진 영상 속 노엘 W. 앤더슨 작품 관람 모습. (광주비엔날레 제공)

의미를 듣고 감탄하기도 했다. 또한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이번 테마인 '인류세'와 '지구의 위기'에 대해 공감하기도 했다.

스타들 이외에 인플루언서도 광주비엔날레를 언급했다. 13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모델이자 인플루언서 박제니는 유튜브 채널 '제니파크'에서 MZ코스로 꼭 봐야 할 전시에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소개했다.

한편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8곳의 양림동 전시장에서 12월 1일까지 진행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명훈이 피아니스트로...여수밤바다와 어우러진 클래식 선율

'여수음악제' 26일까지 예울마루

관현악 약기의 매력을 만끽하는 교향악은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낭만적인 여수 밤바다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마에스트로 정명훈,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등이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가들이 출연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제)여수음악제와 KBS교향악단이 7일간의 클래식 축제 '제8회 여수음악제'를 26일까지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및 여수시 일원에서 개최한다.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직접 피아니스트 무대에 오르며, 국내외 저명 연주자들이 총출동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다.

20일 오후 5시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펼쳐진 개막 연주회에서는 베토벤 곡 '트리플 콘체르토'가 울려 퍼졌다. 원숙기인 30대 중후반에 쓰여진 이 작품은 교향곡 '합창', 소나타 '열정'과 함께 베토벤의 3대 걸작으로 손꼽힌다. 첼리스트 한재민,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이 출연하며 지휘봉을 잡는 정명훈이 피아노 연주를 곁들였다.

두 편의 특별연주회도 마련된다. 이튿날 오후 7시 30분 진행하는 '정명훈과 친구들'은 슈베르트



특별 연주회에 출연하는 지휘자 정명훈(오른쪽)이 정경화와 협연하는 장면.

의 청년기 패기와 음악적 감성이 깃든 '송어'로 채워진다. 피아노 5중주로 편성해 실내악 공연에서 애연되는 작품이다.

23일 오후 7시 30분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열리는 'Living Legend'도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와 그가 이끄는 체임버 오케스트라 '크레메라타 발티카'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피아졸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등을 연주

한다. 이의 소극장 시리즈 첼리스트 홍진호의 '안 디무지크'는 24일, 베이스바리톤 길병민의 '별을 캐는 밤'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각각 오후 7시 30분 진행된다. 폐막연주회(26일 오후 5시) '새로운 페이지'에서 여수음악학교 수료생들과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는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을 협연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판소리로 만나는 조선시대 혼인프로젝트 '김신부부던'

예락, 23일 광산문화회관

조선 정조대 문인 이덕무(1741-1793)는 고대 소설 '김신부부사혼지'에서 혼기를 놓쳐버린 노총각·노처녀 문제를 다뤘다. 경제적 궁핍함 등으로 결혼을 못한 이들을 국가가 주도해 혼인시키는 내용이다.

조선시대 비혼 문제를 재해석한 판소리극이 무대에 오른다. 예락(대표 김보람)이 '조선혼인프로젝트 김신부부던'을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

새로운 왕이 즉위했으나 백 년 만의 큰 가뭄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이를 노총각·노처녀 때문이라 생각한다. 조정에서는 가난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돈과 포목을 지원하는 혼인지원정책을 시행한다.

몇 달 후, 나라에 남은 미혼자는 단 세 사람이

다. 집안이 가난해 파혼당한 노총각 '김희집'과 무뚝뚝한 노처녀 '신연례', 자유로운 삶을 개척하는 노처녀 '떡장수 삼월이'는 저마다 짝을 찾을 수 있을까.

공연은 미디어아트와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 볼거리를 더한다. '혼수 준비가'를 비롯해 '떡타령', '기우제' 등 신명 나는 우리 소리가 흥을 돋운다.

2015년 지역에서 창단한 예락은 올해 국립국악원 '국악배달방', 예술시민배움터 '열수! 소리 이야기 탐험대' 등 다양한 교육사업 및 공연 프로그램을 펼쳐 왔다.

김보람 대표는 "조선 초유의 '혼인 프로젝트'를 극화한 이번 작품은 사회적 문제를 다뤘음에도 해학과 풍자를 곁들여 부담스럽지 않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신과 비혼이라는 모티프는 오늘날 관객에게도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조선혼인프로젝트 김신부부던'을 공연하는 모습. (예락 제공)

했다. 무료 공연, 광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